

## 윤동주 시에 나타난 고백의 기독교적 성격 연구

노승욱(서울시립대학교 국문학 강사)

### 논문초록

이 논문은 윤동주 시에 나타난 고백의 기독교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동주 시에 나타난 고백은 참회(회개)와 희생(제의)의 기독교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윤동주의 초기 작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 없이 성별된 희생제물과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이 나타난다.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묵은 자선시고에서는 죄를 질병과 동일하게 인식하면서 병든 상태에 놓인 민족의 구원을 염원하는 기도의 고백이 나타난다. 이는 윤동주가 일제의 압제 아래 있던 우리민족을 애굽에 속박당해 있던 히브리민족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동주가 일본유학을 위해서 굴욕적인 창씨개명을 하고 지배자의 나라에서 썼던 시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인식하고 그 부끄러움을 토설하는 고백이 나타난다. 윤동주 후기 작품의 특징인 허물의 고백은 시인의 내밀한 윤리의식을 드러내면서 부끄러움의 미학을 확립하고 있다.

**주제어:** 고백, 기독교, 흠, 죄, 허물, 부끄러움의 미학

## I. 서론

윤동주(尹東柱)는 청소년 시절인, 용정(龍井) 광명중학(光明中學) 재학 당시 간도에서 발간되던 『카톨릭 소년(少年)』에 동주(童舟)라는 이름으로 당시 몇 편을 발표한 이래 조선일보 학생란 및 연희전문학교 문과 발행의 『문우(文友)』지에 작품 몇 편이 실렸을 뿐, 대부분의 시는 해방 후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1. 30)가 간행됨으로써 비로소 한국문학사에 소개되었다. 그는 직접적인 문단활동의 체험이 없다는 이유로 문학사 서술에서 제외되다가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에서 본격적으로 문학사 범주에 편입되었다(김윤식·김현, 1973: 207~208). 그의 시가 위치한 1940년대의 문학사적 공간은 일제가 소위 대동아전쟁을 성전으로 선포하고 황민화정책을 추구하던, 일제강점기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암흑기 속에서 창작된 윤동주의 시는 단순히 민족적 자긍심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고백의 시학을 독창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윤동주의 시에 대한 연구 방향은 크게 역사전기적 방법과 형식주의적 방법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남송우, 1979: 195). 이러한 대별의 밑바탕에는 그의 시에 대한 저항시 유무의 논의<sup>1)</sup>가 게재되어 있다. 최근에는 저항시/순수시라는 도식의 틀에서 점차 자유로워지며 기호론적 연구와 해체론적 연구, 그리고 탈근대성과 탈식민성 등에 대한 연구<sup>2)</sup>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윤동주 시 연구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실향자로서의 본향(本鄉)의식과 희생제물로서의 대속(代贖)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선, 1989. 8: 37). 이와 관련한 그의 사상적 배경으로 민족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들 수 있다. 이는 윤동주가 자라난 간도지방의 명동촌(明東村)이 관북 일대의 교육과 독립운동의 중심지라는 사실(송우혜, 1998: 47~53)<sup>3)</sup>과 윤동주의 가계가 조

1) 윤동주의 시를 저항시로 보는 견해로는 이상비(1960), 홍기삼(1974), 김우중(1976), 임현영(1976) 등의 연구가 주된 방향이 되어 왔다. 이에 반해 오세영(1976)의 연구는 이에 대한 반론의 대표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다.

2) 최윤정(2009), 전동진(2008), 권진홍(2008), 임현순(2001), 최숙인(2001), 김승희(1995), 김의수(1991), 이사라(1987) 등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

3) 북간도 최초의 신학문교육기관으로 1906년에 세워진 서전서숙(瑞甸書塾)이 문을 닫게 되자 명동촌 사람들은 1908년 4월 27일, 명동서숙(明東書塾)이라는 이름의 신학문교육기관을 세웠다. 명동서숙은 1909년, 정재면(鄭載冕)이 교사로 부임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었다. 정재면은 부임의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정규과목의 하나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부 때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신앙적 배경(이건청, 1994: 14)<sup>4)</sup>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운동주는 실향의식과 대속의식을 융합시켜 그의 시에서 독특한 고백의 시학을 나타내고 있다. 운동주 시의 원형심상 또는 정서의 원형질을 이루고 있는 향수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실향의식을 담고 있는데(김재홍, 1984. 5: 372), 식민지 청년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북간도 이주민의 후예로서의 실향민 정체성과 모태신자로서의 기독교인의 정체성 등과 결합되면서 복합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식민지인과 실향민, 그리고 신앙인의 정체성은 그의 시에서 잃어버린 고향(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향수의 정서와 민족의 죄를 대신 속죄함으로써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생양 의식 등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 연구는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고백의 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운동주의 시에 있어서 고백은 시 주제를 표현하는 형상화 방식임과 동시에 그의 시 담론을 형성하는 내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시에 있어서 고백은 참회(회개)와 희생(제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참회와 희생은 죄(악)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죄의식이 언어적으로 발화되어 형성된 고백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주의 경우 신화적 상징을 시의 의미 구조로 파악하고 있기에(김옥순, 1986. 4: 132) 그의 시에 나타난 고백의 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운동주 시에 나타난 고백의 담론을 규명하기 위해서 폴 리콥르(Paul Ricoeur)의 해석학 이론을 원용하고자 한다. 리콥르는 신화가 과학과 마주치면 비신화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엄 있는 상징으로 고양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신화의 상징 기능은 사람이 성스럽게 여기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화의 뿌리는 제사의식에서 나오는 죄의 고백과 예언자의 공의 호소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의 고백은 원죄에 대한 성찰이 타락의 신화를 거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Ricoeur, 1969: 5~6).

야 함”을 내세웠다. 정재면은 신민회(新民會)의 교육단 단장을 겸직하면서 명동촌을 신학문과 민족 교육, 기독교신앙이 공존하는 마을로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4) 운동주의 조부인 윤하현(尹夏鉉)은 1910년에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이미 1909년에 기독교에 입교한, 민족교육운동가 김약연(金躍淵)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윤하현은 김약연을 도우면서 과감히 가풍을 고치고 신문화를 도입, 실천하였다.

리콥르는 고백의 체험이 복합성을 띤다고 말한다. 이는 죄의 고백이 드러내는 체험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콥르는 죄의 고백이 드러내는 체험을 흠(defilement), 죄(sin), 허물(guilt)의 세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흠과 죄와 허물은 고백의 다양한 체험에서 비롯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 흠이 금기물에 대한 접촉으로 인한 오염이나 훼손을 의미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는 신 앞에 선 인간의 실제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허물은 인격적 존재가 마음 중심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내밀한 감각으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내면화된, 가장 발전된 단계의 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Ricoeur, 1969: 7~8).

윤동주가 태어나서 자랐던 북간도 용정의 명동촌이 마을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윤동주가 모태신자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자라났으며 윤동주가 거쳤던 학교가 명동소학교에서 시작하여 은진중학교, 숭실중학교, 연희전문학교, 일본의 릿쿄대학교와 도시샤대학교 등 거의 모두가 기독교계 학교<sup>5)</sup>라는 점에서 윤동주 시 연구는 기독교적 성격의 규명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흠과 죄와 허물에 대한 리콥르의 신학적 상징이론이 성경해석학에 바탕하고 있기에 리콥르의 해석학을 원용한 연구는 윤동주 시의 고백이 나타내는 기독교적 성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윤동주 시의 연구 판본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과 중판본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초판본은 윤동주가 자선시집을 내려고 제본해두었던 시고 19편과 유작 12편이 더해져서 1948년에 정음사에서 간행된 바 있다. 중판본은 초판본에 유작 62편이 추가되어 편집되면서 1955년에 역시 정음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총 10편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초판본에 실려 있는 시 8편은 초판본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초판본에는 없지만 중판본에 추가된 시 2편은 중판본을 인용하였다. 비록 유고시집이라 하더라도 윤동주 시에 형성된 고백의 문체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

5) 윤동주가 거쳤던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계가 아니었던 학교는 북간도 용정의 광명중학교이다. 그런데 그가 광명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4년제였던 은진중학교에서 4학년을 마친 윤동주는 대학 진학을 위해 평양 숭실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당시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5년제 중학교를 졸업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숭실중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소요가 일어나자 윤동주는 자퇴한 후에 용정으로 돌아와 광명중학교에 편입한 후에 5학년을 마치고 졸업하였다. 당시 용정에는 5년제 중학교가 없었으므로 윤동주는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독교계도 아니고 민족계도 아니었던 광명중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도록 최초에 출판된 시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 글에서 인용한 시작품은 출판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따랐음을 밝혀둔다.

## II. 성별된 희생제물로서의 메시아 고백

윤동주는 모든 시에 창작 완료일을 부기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작품 전체를 조망하는데 유용한 단서가 된다. 윤동주가 그의 시 중에서 가장 최초에 창작한 시는 「초 한 대」(1934. 12. 24)이다. 윤동주는 시작 초기 성인시와 함께 동시도 창작하였는데 동시 창작 이전에 모두 5편의 성인시를 창작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탈고된 시가 「초 한 대」와 「삶과 죽음」이다. 당시 윤동주는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가 김약연과 이동휘 등의 요청에 의해 세웠던 은진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8세에 쓰여진 그의 첫 시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책상 위에 놓인 초 한 대를 통해 희생제물로 구별된 메시아(Messiah)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초 한 대 - / 내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  
 光明의 祭壇이 무너지기전 / 나는 깨끗한 祭物을 보았다. //  
 염소의 갈비뼈같은 그의 몸, / 그의 生命인 心志까지 /  
 白玉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 불살려 버린다. //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 暗黒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  
 나의 방에 품긴 / 祭物의 偉大한 香내를 맞보노라.  
 - 「초 한 대」 전문(윤동주, 1955: 124~125)

초 한 대라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 즉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생명의 존재를 암시한다. 또한 자신을 태움으로써 어둠을 밝히는 초의 상징성은 희생제물의 속성을 나타낸다. 특히 이 작품은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에 쓰여진 작품이다. 즉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대하는 성탄 전야에 시적 화자는 아기 예수를 희생제물과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희생제물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순결한 것이어야 한다. 깨끗함이란 흠을 없앤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성결하게 구별하는 행위에서 흠의 상징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흠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의라고 할 수 있다

(Ricoeur, 1969: 35).

윤동주의 시에서는 원시종교적 금기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흠의 고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의 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성결의식은 흠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시(序詩)』(1941. 11. 20)에서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1948: 15)고 토로하는 고백은 어떠한 흠도 만들지 않으려는 시인의 기독교적 성결의식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결의식에서 흠의 상징성을 읽어낼 수 있다. 흠의 상징성은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윤동주 시에 있어서 희생제물의 표상은 메시아로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윤동주는 『초 한 대』에서 메시아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초로, 그 초가 타면서 나는 냄새를 희생제물의 향내로, 그리고 초의 심지를 영혼의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시에서 초는 제단 위에 놓인 깨끗한 제물, 즉 성별된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이다. 한 대의 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워 암흑을 몰아내는 제물이자 자기희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김홍규, 1974. 가을호: 643) 시적 화자가 초를 제물로 인식한 것은 구약성경의 제사 중에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burnt offering)로부터 그 심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 이외에도 있지만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밖에 없다. 또한 번제로 드리는 동물은 흠 없는 완전한 수컷이어야 했다(구약성경 레위기 22: 19 ; 말라기 1: 8).

이 시에서 윤동주는 흰 색의 초에서 흠 없는 깨끗함의 이미지를 취하고, 그 초가 타는 모습에서 희생제물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초는 심지의 불꽃이 다하기까지 그 몸체가 남김없이 녹아지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번제물이 상징하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적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초가 타면서 나는 냄새는 희생제물이 번제로 드러지면서 나는 향내로 표상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번제의 향내는 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민수기 28: 6·8 ; 29: 6). 또한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되고 있다(에베소서 5: 2).

순결하고 향기로운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죄로 인해 멀어졌던 신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Calvin, 2003: 620).<sup>6)</sup> 신약성경에

6) 존 칼빈(John Calvin)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속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씻겨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적의의 원인이 제거되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화목케

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요한일서 2: 2)”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염소의 갈비뼈같은 그의 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몸을 표상하며 “백옥같은 눈물과 피”는 순결하고 무죄한 희생제물인 예수의 고난을 상징한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초에서 희생제물로서의 예수의 이미지를 읽어내고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의 위대성을 고백하고 있다. “나의 방에 품긴 제물의 위대한 향내”는 시적 자아가 속죄양으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다.

그렇지만 성결하게 구별된, 순결하고 흠 없는 희생제물은 결국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듯 성별된 정체성이 소외된 의식과 맞부딪칠 때 고백의 언어는 혼란의 양상을 겪게 된다. 다른 존재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희생제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소외의 체험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듯 자기 자신이면서 동시에 자기로부터 소외되는 고백의 체험은 곧바로 물음 형태의 차원이 된다(Ricoeur, 1969: 8) 결국 성별된 희생제물의 절대적 소외에 대해 인식하게 된 시적 화자는 삶과 죽음의 엄청난 간극의 두려움에 대해 실존적 물음을 묻게 되는 것이다.

삶은 오늘도 죽음의 序曲을 노래하였다. / 이 노래가 언제나 끝나라  
 세상사람은- / 뼈를 녹여내는 듯한 삶의 노래에 / 춤을 춘다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기전 / 이 노래 끝의 恐怖를 /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

하늘 복판에 알새기 듯이 / 이 노래를 부른자가 누구뇨 //

그리고 소박비 그친뒤같이도 / 이 노래를 그친자가 누구뇨 //

죽고 뼈만 남은 / 죽음의 勝利者 偉人들!

- 「삶과 죽음」 전문(윤동주, 1955: 122~123)

「삶과 죽음」(1934. 12. 24)도 「초 한 대」와 같은 날 탈고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삶을 죽음과 동시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역시 「초 한 대」와 일치한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삶이 죽음의 서곡을 노래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성탄 전야의 그리스도 탄생 순간에 이미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생제물로 선택된 메시아에게 삶의 노래는 “뼈를 녹여내는 듯한”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지만 그 삶의 노래가 끝난 후에 찾

---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전에 부정하고 불순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오는 공포(두려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고통스러운 삶의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이며, 또 그 노래를 다시 그친 자가 누구이냐며 실존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렇지만 시적 화자는 비록 메시아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죽게 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죽음의 승리자 위인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들의 집합체<sup>7)</sup>라고 할 수 있다.

### III. 민족의 구원을 염원하는 기도

운동주의 시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의 길로 들어선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태초(太初)의 아춤』(1941)에서는 원죄가 시작된 바로 그 시간에 독을 머금고 태어난 “빨-간 꽃”(운동주, 1948: 26)이 묘사되고 있다. 꽃이 피어나기 전날 밤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푸른 햇빛 속에 태어난 “어린 꽃”은 독을 머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다. 속죄의 고백에 있어서 죄는 병(病)과 구분되지 않은 개념으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그릇된 죄의 길로 들어선 자들은 병든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병의 속박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icoeur, 1969: 86~87).<sup>8)</sup>

이러한 문맥에서 연회전문학교를 졸업할 때 운동주가 졸업기념으로 내려한 자선시집의 이름을 변경한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즉 운동주는 처음에 자신의 시집 이름을 『병원(病院)』으로 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세상이 온통 환자투성이라는 그의 인식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이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이 시집이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정병욱, 1976. 6: 140). 결국 운동주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방편의 일환으로써 상당수의 시를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의 이러한 창작의식을 감안했을 때 아래의 시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작품들이다.

7) 고린도전서 15장 22~23절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뒤이어 그를 따르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8) 리코르네 죄와 병의 착종적 개념으로 인해서 그 대응적 개념은 치유를 뜻하는 용어가 된다고 말한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病院 뒷뜰에 누워, 젊은 女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日光浴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女子를 찾아 오는 이, 나비 한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病을 모른다. 나한테는 病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試鍊, 이 지나친 疲勞, 나는 성내서는 안된다. // 女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花壇에서 金盞花 한포기를 따 가슴에 품고 病室안으로 살아진다. 나는 그 女子의 健康이-아니 내 健康도 速히 回復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 「病院」 전문(윤동주, 1948: 21~22)

(나) 거미란놈이 흉한 심보로 病院뒷뜰 난간과 꽃밭사이 사람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 놓았다. 屋外療養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치어다 보기 바르게- // 나비가 한마리 꽃밭에 날아 들다 그물에 걸리었다.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꼬 감기우기만 한다. 거미가 쓴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어버린다.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 나이보담 무수한 고생끝에 때를 잃고 病을 얻은 이 사나이를 慰勞할말이-거미줄을 형클어 버리는 것 밖에 慰勞의 말이 없었다.

- 「慰勞」 전문(윤동주, 1948: 58)

(가)의 「병원(病院)」(1940. 12)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자신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병원에 찾아가지만 늙은 의사는 나의 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병이 없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그러한 병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족에게 주어진 공동체적 시련의 증상이다. 내가 병원에서 만난 젊은 여자는 가슴을 앓고 있지만 그 여자에게는 나비 한 마리조차 찾아오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비는 자유와 회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며 내 건강과 그 여자의 건강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란다. 여인이 누웠던 자리에 내가 놓는 행위는 민족의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시적 화자가 공동체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위로(慰勞)」(1940. 12. 3)는 「병원」과 상호텍스트성을 지닌 시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무수한 고생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사나이는 옥외요양을 하며 투병 중이다. 그런데 거미 한 마리가 병원 뒤뜰 꽃밭 사이에 그물을 쳐놓았다. 자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나비는 그 그물에 걸려들고 만다. 투병 중인 사나이는 온몸이 감겨버린 나비를 “긴 한숨”을 내쉬며 바라본다. 결국 (가)의 「병원」에서 가슴을 앓는 여인에게 나비가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미의 속박 때문인 것이다. 시적 화자는 사나이에게 유일한 위로는 나비를 움아매고 있는 거미줄을 형클어버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거

미에 의해 압제된 나비의 이미지는 포로로 잡힌 자의 상징적 모습이다. 결국 윤동주는 이 시를 통해서 병을 앓고 있는 사나이와 여인으로 상징되는 우리민족을 힘으로 압제하며 속박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를 거미로 묘사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포로상태(captivity)란 문자적으로 상호주관적인 사회적 상황이다.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는 죄로 인해 주체가 소외되는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죄의 상징이 된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속박 안’에 있듯이 죄인은 ‘죄 안’에 있다. 죄는 사람의 ‘안에 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이다. 그래서 죄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Ricoeur, 1969: 93). 이러한 문맥하에서 윤동주 시에 나오는 자유를 빼앗긴 환자들의 은유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이 겪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연결된다. 이제 죄는 개인의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속한 민족공동체의 죄로 표면화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구속(救贖, buying back)을 통한 돌아옴(return)의 상징이다(Ricoeur, 1969: 91)<sup>9)</sup> 따라서 포로상황에서의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는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이 된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해방이 바로 구속의 개념이다. 그리고 구속의 절정은 속죄양의 희생제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윤동주는 그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던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언덕을 자신이 처한 시대적·민족적 상황과 동일시하면서 민족의 구원을 염원하는 기도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다.

(가) 괴로왔든 사나이. / 幸福한 예수·그리스도에게 /

처럼 / 十字架가 許諾된다면 //

목아지를 드리우고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어두어가는 하늘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十字架』 부분(윤동주, 1948: 30~31)

(나)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 (중략)

단 한女子를 사랑한 일도 없다. / 時代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꼬 부는데 / 내발이 반석우에 섰다. //

강물이 자꼬 흐르는데 / 내발이 언덕우에 섰다.

- 『바람이 불어』 부분(윤동주, 1948: 32~33)

9) 리코르는 “돌아옴(return)”의 상징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한 죄를 상기시킨다면, “구속(buying back)”의 상징은 죄의 권세로부터 몸값을 치른 죄인의 구원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이들 간격을 두고 쓰여진 위의 두 시는 민족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는 속죄의식이 형상화된 작품들이다. (가)의 『십자가(十字架)』(1941. 5. 31)에서 죽음의 형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시적 화자의 의지는 민족적 속죄의 희생양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최지언, 1989. 8: 412).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면, 시적 화자는 민족을 위한 속죄의 희생양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괴로 왔든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설적 의미화는 속죄양이 공동체의 갈등을 자기희생으로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희생적 행위의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홍규, 1974. 가을: 657). 시적 화자는 자신에게도 운명적인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신의 생명의 상징인 “꽃처럼 피어나는 피”<sup>10)</sup>를 민족의 구원을 위한 제단에 바치겠다고 결심하며 비장한 심정으로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바람이 불어』(1941. 6. 2)에서 자꾸 불어오는 바람과, 자꾸 흘러가는 강물은 역사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시적 자아의 운명적인 고난을 상징한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는 시적 자아는 운명적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석과 언덕을 자신의 정체성이 자리할 입지점으로 삼는다. 이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언덕은 예수가 못 박힌 골고다의 언덕을 상징한다. 언덕의 상징은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적 장소(이사라, 1987: 74)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로 인해 속죄양은 신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화목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전기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윤동주에게 있어서 골고다의 언덕은 결국 그가 옥사했던, 적국의 큐슈에 위치한 후꾸오카 형무소였던 셈이다.

#### IV. 허물의 인식과 부끄러움의 토설

윤동주는 이른바 황민화정책<sup>11)</sup>의 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10) 리콤프(1969: 98)는 회개의 고백이 속죄제의를 통해 표현된다고 하면서, “속죄의 날(day of expiation)”에는 죄의 고백도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지만, 무엇보다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속죄 행위가 그 중심을 이룬다고 말한다.

11) 일제는 황민화정책이란 미명 아래 한국어의 사용 금지, 한국어신문의 폐간, 사상범 예비구속령, 기독교 박해,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의 강요, 육군특별지원병령, 강제연행 등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다(이 부키 고우(伊吹郷), 1985. 3: 347).

군국주의에 물든 ‘ 지배자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것이 그의 나이 26세 때의 일이다. 이 때 윤동주는 도일 수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을 ‘히라누마(平沼)’로 창씨개명하였다. 창씨개명은 민족정신과 기독교신앙의 정체성을 지닌 시인에게 참담한 굴욕과 부끄러움을 체험케 한 사건이었다. 윤동주는 졸업증명서, 도항증명서 등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1942년 1월 19일, 연희전문학교에 히라누마로 창씨개명한 이름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굴욕감에 괴로워하며 닷새 후인 1월 24일, 고국에서의 마지막 시작품인 『참회록(懺悔錄)』(1942. 1. 24)을 완성하였다.

과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 내 얼굴이 남아있는것은 /  
 어느 王朝의 遺物이기에 / 이다지도 욕될까 //  
 나는 나의 懺悔의 글을 한줄에 줄이자 / - 滿二十四年 一個月을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는가 //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 나는 또 한줄의 참회록을 써야한다. /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 왜 그런 부끄러운 告白을 했든가 //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  
 그러면 어느 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懺悔錄』 전문(윤동주, 1948: 62~63)

『참회록』은 그의 고백이 죄의 단계에서 허물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이다. 참된 허물 의식은 스스로에게 완전성을 요구하는 고백이다. 보편적인 죄가 개인적으로 내면화되는 허물의 단계에서는 수동적 의무를 넘어선 능동적 완전성의 요구로 실존의 깊이를 더해가게 된다. 윤리적 완전성의 요구에 직면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기 행위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내밀한 동기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윤리적 주체가 된다. 내면화된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도덕적 양심에 의해 개인적인 허물로 인식된다. 성경에서 죄인을 호칭하는 ‘당신(thou)’은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나(I)’가 되는 것이다. 이제 허물을 인식하는 양심은 악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Ricoeur, 1969: 103~104).

위의 시에서 “과란 녹이 낀 구리거울”은 시적 자아의 양심을 비추는 반성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정성껏 내면의 거울을 닦을 때 자신의 허물로 인해 부끄러움<sup>12)</sup>을 느끼는 내면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되

12) 김윤식과 김현(1973: 208)은 한용운이 식민지적 현실을 슬픔과 이별의 미학으로 승화시켰다면 윤동

는 것이다. 참회의 고백은 시인에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적 공간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윤동주가 『참회록』에서 표상한 “구리거울”의 심상은 그가 3년 전에 썼던 『자화상(自畫像)』(1939. 9)에 나오는 “우물”의 심상이 변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리거울과 우물의 심상은 객체를 통해서 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들여다보는 행위’를 유발한다(마광수, 2005: 125). 『자화상』에서 시적 자아는 객체화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미움, 가여움, 그리움 등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씨개명 후에 창작한 『참회록』에서는 구리거울을 바라보는 시적 자아가 나타내는 부끄러움의 감정으로 압축되고 있다. 위의 시에서 시적 자아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 자신의 구리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행위를 “밤이면 밤마다” 반복한다. 그러나 아무리 손과 발로 매일 밤 닦더라도 시적 자아의 구리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비추어주지 못한다.<sup>14)</sup> 시적 자아가 “늑이 낀 구리거울” 속에서 매일 발견하는 것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욕된 모습일 뿐이다. 그러나 시적 자아는 자신의 모습이 욕되게 느껴지는 것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시적 자아는 자기 자신의 허물에 보다 집중한다. 시적 자아는 “구리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참회의 글”을 써야만 함을 느낀다. 유학의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창씨개명이었지만 윤동주는 이를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도 또 한 줄의 참회의 고백을 토설해야 함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공표가 민족이 처한 운명의 극복에 어떤 가능성도 주지 못할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주체들이 개인의 죄를 허물로 선포하는 것이다(Ricoeur, 1969: 105). 죄의 도식에 따르면 악이란 인류 전체가 죄 안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다. 허물의 도식에 따르면 악이란 각 개인이 발생시키는 행위이다(Ricoeur,

---

주는 그러한 현실을 부끄러움의 미학으로 극복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윤동주는 식민지 치하의 고통을 부끄러움의 미학으로 극복하면서 식민지 후기의 무질서한 정서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13) 최동호(1979: 322)는 현재의 참회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참다운 참회는 아니지만,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최소한의 영역에 자성적인 삶의 내면성을 확보한 시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4) 칼빈(1995: 382~383)은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언급한 바 있는 ‘구리거울’의 비유를 통해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취하는 지식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비록 지금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자체는 확실하고 참된 것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1969: 106~107). 이제 문제는 각 개인의 윤리적인 결단과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허물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그 주관적 인식의 척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윤동주의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되는 「쉽게 써워진 시(詩)」(1942. 6. 3)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허물을 인식하면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토설하고 있는 작품이다.

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 六疊房은 남의 나라, //  
 詩人이란 슬픈 天命인 줄 알면서도 / 한줄 詩를 적어볼까, //  
 땀내와 사랑내 포그니 품긴 / 보내주신 學費封套를 받아 //  
 大學노-트를 끼고 / 늙은 教授의 講義 들으려 간다. //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 하나, 둘, 죄다 잃어 버리고 //  
 나는 무얼 바라 / 나는 다만, 홀로 沈澱하는 것일까? //  
 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 詩가 이렇게 쉽게 써워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  
 六疊房은 남의 나라 / 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 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最後의나, //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慰安으로 잡는 最初の 握手.  
 - 「쉽게 써워진 詩」 전문(윤동주, 1948: 50~51)

위의 시에서 다다미 여섯 장이 깔린 일본의 하숙집 방에서 바라본, 밤비가 속살거리는 창은 시인의 내면적 자아를 비추는 매개체가 된다. 시적 화자가 시인이란 정체성을 슬픈 천명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를 통해서 부끄러움의 고백을 끊임없이 토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 가보지만 「병원」이란 시에서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처럼 이 시에 등장하는 늙은 교수도 시적 화자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제 시적 화자는 홀로 자신의 윤리적 자아에 침전함으로써 허물의 고백을 일구어내야 한다. 죄에 대한 주관적 가치 척도인 허물은 즉자(卽自)로서의 존재를 대자(對自)로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부끄러움의 토설을 통해 표면화되는 허물의식은 실존적 자아가 가치 하락을 경험하는 의미로서의 처벌이 된다. 허물의식은 처벌을 응보적인 의미가 아닌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 속죄, 즉 교정(amendment)의 의미로 받아들인다(Ricoeur, 1969: 102). 위의 시에서 “쉽게 써워진 시”는 천명파도 같은 시를 써야하는 시인에게 정체성의 가치 하락을 겪게 하는 징벌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에게 있어서 자아의 가치 하락은 그 자체가 징벌이 되기에, 그러한 벌을 교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시에서 “시가 이렇게 쉽게 써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고백도 허물 의식을 통해 부끄러움을 토설하는 시인이 자아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다짐하는 교정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과 수정의 의미는 한 시인이 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인간적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비, 1960. 11: 212). 이러한 윤리적 자아의 고백이 실존의 가치를 높여갈 때 『참회록』에서 “슬픈 사람의 뒷모양”의 이미지로 바라보던 내면적 자아를 이제는 마주보며 “적은 손을 내밀어” 부끄러운 자신을 눈물로 위안하는 악수를 건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윤동주 시의 지배적 모티프는 심미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자기정체성의 완성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우창, 1976. 4: 215).

『쉽게 써워진 시』는 윤동주가 부끄러움의 미학을 어떻게 완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윤동주의 시에서 부끄러움의 미학은 『참회록』의 자괴적 부끄러움을 거치면서 『쉽게 써워진 시』의 위안적 부끄러움의 의미로 완성된다. 『참회록』에서의 부끄러움이 창씨개명으로 인한 시인의 자괴감에 바탕해 있다면, 『쉽게 써워진 시』에서의 부끄러움은 “슬픈 천명”을 지니고 “남의 나라”에서 시를 써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 어린 “위안”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화상』에서의 “우물”과 『참회록』에서의 “구리거울”이 시적 자아가 객체화된 주체를 바라보게 해주는 매개체였다고 한다면, 『쉽게 써워진 시』에서는 “창(窓)”이 반성적 성찰의 매개물로 표상되고 있다. 우물과 구리거울을 바라보는 시적 자아가 단지 자신에 대한 연민과 자괴감의 고백을 토로하는 데 그치고 있었던 것에 반해, 밤비 내리는 창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는 미래의 자기 자신을 예견하는 고백을 한다. 시적 화자는 적국의 옥첩방에서 시를 쓰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조국의 광복이 이루어지는 “시대처럼 올 아침”에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신이 “최후의 나”가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적 화자는 옥첩방의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한 번도 내밀지 못한 손을 내밀어 “최초의 악수”를 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V. 결론

윤동주의 시에 있어서 고백은 그의 시담론의 토대를 형성하는 내적 구조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윤동주의 고백적 시담론을 성경해석학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의 시가 나타내는 기독교문학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의 시에 있어서 고백은 여타 시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기독교 성경에서 비롯된 언어로부터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윤동주 시의 고백은 기독교 성경과의 알레고리에 의해 형성된 희생제물의 제의적 상징들과 참회자가 토설하는 속죄고백의 언어적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나고 있는 고백은 복합적인 정체성으로부터 말미암고 있다. 윤동주는 시대적으로 식민지 청년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증조부 때부터 북간도로 이주하여 살아온 실향민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어려서 유아세례를 받고 자라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정체성은 그가 민족정신과 기독교신앙이 조화를 이룬 고백의 시학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동주의 초기 작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 없이 성별된 희생제물과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고백이 나타난다. 윤동주의 시에 있어서는 흠의 고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성결의식은 흠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고 있다. 흠의 상징성은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윤동주 시에 있어서 희생제물의 표상은 메시아로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묶은 자선시고에서는 일제의 속박으로 고통당하는 민족의 구원을 염원하는 기도의 고백이 나타난다. 그의 시에서 죄의 상징은 병든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윤동주는 일제의 압제 아래 있던 우리민족을 병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환자의 은유로 표현한 것이다. 민족의 회복을 향한 열망은 시인 자신을 민족 구원을 위한 제물로 바치겠다고 기도하는 비장한 고백으로까지 나아간다. 윤동주는 자신의 시를 통해 상징적인 희생제물로서 민족을 위한 속죄를 감당하려고 한 것이다.

윤동주가 일본유학을 위해서 굴욕적인 창씨개명을 하고 지배자의 나라에서 썼던 시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인식하고 그 부끄러움을 토설하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 허물의 인식을 통해 시인은 실존적 자아의 가치가 하락하는 내면적 고통을 체험한다. 그렇지만 허물을 인식하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 시인은 심미적·윤리적인 자기정체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허물의식을 통해 윤동주는 그의 시를 특징짓는 부끄러움의 미학을 확립하게 된다. 부끄러움의 미학은 일제 치하 말기에 고백의 시어를 통해

윤동주가 이루어낸 한국시사의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권진홍 (2008). “운동주 시에 대한 공간 기호론적 분석”. 『동방학술논단』 7(1). 103-114.
- 김 선 (1989). “운동주 시의 의미론적 고찰”. 『비평문학』 3. 25-39.
- 김승희 (1995). “1/0의 존재론과 무의식의 의미작용”. 『문학사상』 24(3). 205-225.
- 김옥순 (1986). “운동주 시 연구 어디까지 왔나”. 『문학사상』 18(4). 129-146.
- 김우종 (1976). “암흑기 최후의 별-그의 문학적 위치”. 『문학사상』 43. 188-196.
- 김우창 (1976).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문학사상』 43. 206-222.
- 김윤식·김현 (1973). 『한국문학사』. 서울: 민음사.
- 김의수 (1991). “운동주 시의 해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재홍 (1984). “운명애와 부활정신 上”. 『현대문학』 30(5). 368-386.
- 김홍규 (1974). “운동주론”. 『창작과비평』 9(3). 636-675.
- 남송우 (1979). “자기동일성 획득의 한 모형”. 『국어국문학』 16. 194-214.
- 마광수 (2005). 『운동주 연구』. 서울: 철학과현실사.
- 송우혜 (1998). 『운동주 평전』. 서울: 세계사.
- 오세영 (1976). “운동주 시는 저항시인가?-시의 재평가”. 『문학사상』 43. 223-233.
- 운동주 (1948).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서울: 정음사.
- \_\_\_\_\_ (1955).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서울: 정음사.
- 이건청 (1994). 『운동주-신념의 길과 수난의 인간상』.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이사라 (1987). “운동주 시의 기호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상비 (1960). “시대와 시의 자세-운동주론”. 『자유문학』 5(11). 210-216.
- \_\_\_\_\_ (1960). “시대와 시의 자세-운동주론”. 『자유문학』 5(12). 266-276.
- 임현영 (1976). “순수한 고뇌의 절규-작품에 나타난 저항성”. 『문학사상』 43. 197-205.
- 임현순 (2001). “운동주, <자화상>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 리파메르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9. 231-258.
- 전동진 (2008). “운동주 시의 탈근대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23. 319-343.
- 정병욱 (1976). “잊지 못할 운동주의 일들”. 『나라사랑』 23. 132-241.
- 최동호 (1979). “운동주 시의 의식 현상”. 『현대문학』 25(12). 319-333.
- 최숙인 (2001). “제3세계 문학과 탈식민주의 : 필리핀의 호세 리잘과 한국의 운동주”. 『비교문학』 27. 55-77.
- 최윤정 (2009). “운동주 시 연구 : 타자로 구성되는 주체의 탈식민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2). 137-166.
- 최지언 (1989). “운동주 시의 원형 모티프”. 『비평문학』 3. 401-417.
- 홍기삼 (1974). “고독과 저항의 세계”. 『월간문학』 7(7). 170-177.
- 이 부끼 고우(伊吹郷) (1985. 3). “시대의 아침을 기다리며”. 『문학사상』 149. 345-361.
- Calvin, John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2003). 『기독교 교강요(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_\_\_\_\_ (1959).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존칼빈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편 (1995). 『칼빈성경주석: 신약』 8.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Ricoeur, Paul (1967). *La Symbolique de mal*. Emerson Buchanan (trans.)(1969).  
*The Symbolism of Evil*. Boston: Beacon Press.

## ABSTRACT

### A Study on the Christian Characteristic of Confession in Yoon, Dong-ju's Poem

Seung-Wook Roh(The University of Seoul)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Christian characteristic of confession in Yoon, Dong-ju's poem. The confession in his poem connotes the Christian symbol of penitence(repentance) and sacrifice(rites of purification). The confession in Yoon, Dong-ju's early works indicates that Jesus Christ was a flawless sacrificial offering and the Messiah. When he graduated Yonhi College, he self-selected his poetry. He identified sin with disease and prayed for the salvation of diseased people. He identifies his people groaning under Japanese tyranny with Hebrew suffered under Egyptian oppress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e was forced to change his family name to Japanese name, and to write poem in the ruler's country to keep study abroad, and he cognized his guilt and confessed his shame. The confession of guilt in Yoon, Dong-ju's late works come to perfection as the esthetics of shame, revealing his private consciousness of ethics.

Key Words: confession, Christianity, defilement, sin, guilt, the esthetic of shame